

## 2. 원/엔 市場의 開設

- (背景) 외환 시장의 선진화, 원화의 국제화 촉진 및 외환 시장의 거래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96년 10월 1일부터 국내 원/엔 시장을 개설함
- (運營方案) 원/엔 시장은 국제 외환 시장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재정 환율방식을 적용하고, 일일 환율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음
- (效果) 원/엔 시장의 개설로 원/엔화의 거래 단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거래 비용 절감, 엔/달러 환율 급변에 따른 환리스크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, 국내 외환 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촉진 등이 기대됨
- (課題) 원/엔 시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시장 규모를 증대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하며, 효율적 환율 정책과 감독 체계 강화로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함

외환 시장의 선진화, 원화의 국제화, 외환 거래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원/엔 시장을 개설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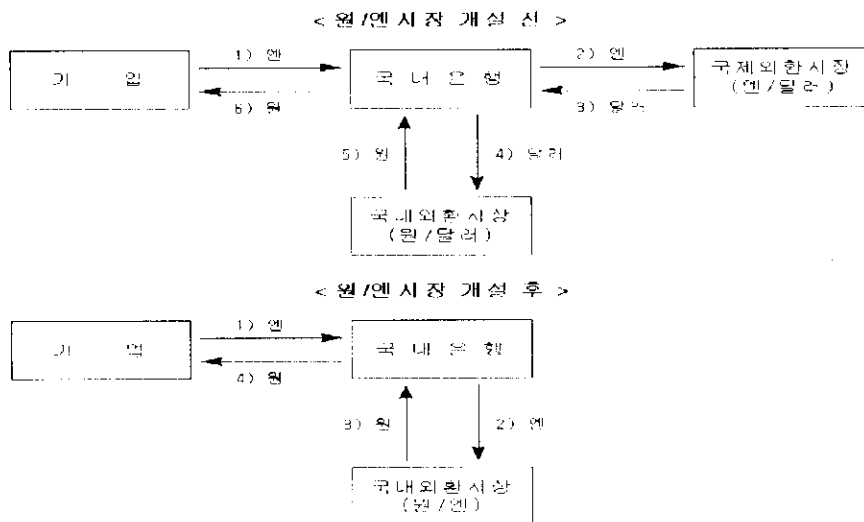
- (背景) 정부는 외환 시장의 선진화 및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내 외환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원/엔시장을 개설함
  - 지금까지 원/달러 시장만이 개설되어 다양화되고 있는 대외 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
  - '96.1/4분기중 원-엔 거래 규모는 총 31억불(일평균 약 5천만불 수준)이며, 전체 경상 거래에서 엔화 표시 경상 거래의 비중도 8.9% 수준
  - 이에 따라 원/엔 시장을 개설하여 국내 외환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선진화 및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함
  - 아울러 원/엔화간 거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거래편의 제고 및 거래 비용 절감을 도모함

원/엔 시장은 재정환율 방식으로 운영하며, 일일 환율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음

- (運營方案) 원/엔시장은 96년 10월 1일부터 개설하며, 금융결제원이 중개 기관의 역할을 함
  - 기준 환율의 결정 : 원/엔 기준 환율은 전일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당일의 원/달러 기준 환율과 동경 외환 시장의 엔/달러 환율(당일 오전 8시40분대)을 제정하여 산출함

- 환율 변동폭 : 엔/달러 환율이 급변하더라도 국내 원/엔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일 환율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음
- 거래종류 및 방법
  - 거래 종류 : 현물환, 선물환
  - 최저 거래 금액 및 거래 단위 : 1천만엔
  - 시장 참여자 : 국내은행, 외국환은행, 증권사 등 국내 1백2개의 외국환 은행에 국한함

<원/엔 시장 개설에 따른 원/엔 거래단계의 변화>



<원/엔시장과 원/달러시장 비교>

|         | 원/엔 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/달러 시장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환율고시방법  | 재정 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일 시장 평균 환율    |
| 일일환율변동폭 | 제한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준 환율 가감 2.25% |
| 거래종류    | 현물환, 선물환                        | 현물환, 선물환, 스왑   |
| 거래단위    | 1천만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만불           |
| 최저거래금액  | 1천만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불           |
| 호가방법    | 100엔(1달러)에 대한 원화 가격을 10전 단위로 제시 |                |
| 거래체결    | 전화에 의한 매매 주문을 전산에 의해 자동 체결      |                |

원/엔 시장 개  
설로 거래 간소  
화, 거래 비용  
절감, 효율적 환  
리스크 관리, 외  
환 시장의 활성화·선진화 촉진  
이 기대됨

향후 원/엔시장  
의 규모 증대,  
시장평균환율제  
도로 전환, 효율  
적인 환율정책  
및 감독체계 강  
화등이 필요

- (效果) 원/엔 시장의 개설로 원/엔화 거래시  
거래전차·거래비용의 감소, 환리스크에 대한  
즉각적 대응 가능, 국내 외환 시장의 활성화  
및 선진화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
  - 원/엔화 거래 단계의 축소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 
대폭 감소하므로 원/엔화간 거래 규모 증대 전망
  - 엔/달러 환율의 급변에 따른 환리스크에 즉각적  
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
  - 이에 따라 환율변동의 불안정으로 엔화 결제를  
기피해 왔던 기업들의 엔화 결제 비중도 증가  
전망
  - 원/엔 시장 개설로 향후 이중 통화간 거래가 더욱  
활발해지고 원화와 마르크를 비롯한 다른 외환 시  
장의 개설이 앞당겨지게 됨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 
의 활성화 및 선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
  - 그러나 외환 시장에서의 원/엔화 거래 비율이나  
규모가 매우 작으므로, 원/엔시장 개설이 대일 무역  
적자나 자본수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

- (課題) 향후 원/엔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 
시장규모의 증대, 시장평균환율제도로의 전환,  
이에 따른 효율적 환율 정책, 시장 조사와 감  
독체계 강화 등이 과제로 대두됨
  - 거래 방법 및 거래 단위를 보다 개선하여 거래  
상의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원/엔시장의 거래 규  
모 증대 및 원/엔 환율의 대표성 제고 필요
  - 원/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, 기존 환율의 결  
정방식을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환율이  
시장의 수급 상황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시장평균환율로 전환시 투기자금 유출입으로 환  
율의 급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제어하  
기 위해 시장조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함

(김 범 구)